

미래인문학 인문역량지수

논술형 측정문항

(영미지역학 영역)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미래인문학 코어사업단

2018년 11월 5일 version 1.0

[질문]

[지문-1], [지문-2], [지문-3], [지문-4]를 바탕으로,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가 지닌 각각의 장 단점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개인과 사회가 바람직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답안 분량]

3,000자 이상 4,000자 이하

[지문-1]

미국은 부분적으로 이민 국가이지만 미국 사회와 문화에 이민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동화시킨 나라이기도하다.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문화에 동화되었고, 미국 사회의 집단들과 제도 혹은 사회적 구조의 네트워크로 들어갔고, 미국 사회의 구성원들과 교차결혼을 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여러 집단들의 미국 사회로의 동화는 다양했으며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화는, 특히 문화적 동화는 아마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였다. 동화 때문에 미국은 인구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수백만의 헌신적이고 활력적이고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미국의 앵글로색슨 기독교 문화와 '미국의 신조'와 가치들에 깊이 헌신하면서, 미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되는 데 일조했다. 역사상 어느 사회도 없었던 이와 같은 성공의 중심에는 하나의 암묵적 계약인 '미국식 동화'라는 것이 있었다. 이와 같은 암묵적 이해 속에서 이민자들은 영어를 국가의 언어로 받아들였고, 미국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꼈고, '미국의 신조' 원칙들을 믿었고 (자존적이고 근면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신교도 윤리에 따라 살았으며 미국인이 될 수 있었다.

동화의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이 미국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민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앵글로색슨 기독교 문화에 바탕을 둔 집단들과 기관들의 하부 사회적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앵글로색슨 기독교 문화와 영어의 보편화, 그리고 앵글로색슨 인구의 절대적인 수적 우위는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모든 이민자 집단들의 다양한 문화가 앵글로색슨 기독교 문화에 녹아 들어갔다. 경직되고 폐쇄적인 몇몇 집단거주지를 제외하고 2세대 이민들은 미국의 앵글로색슨 기독교의 문화적 가치들에 거의 완전히 문화적으로 동화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민과 동화의 나라였으며, 동화는 미국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동화에 반대하는 다문화주의자들은 미국의 문화적 유산의 가치를 다양한 문화 중의 하나로만 여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 선별된 미국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가 얕은 다른 문화적인 것들과 같은 수준으로 놓은 것과 다르지 않으며 문화적인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 다문화주의는 미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민족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친밀도를 높일지 모르나 미국 문화의 전통과 정체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미국인들이 각자의 문화에 따라 자신을 흑인, 인디언, 아시아인, 유대인, 이탈리아인, 아일랜드인의 문화에 동일시하면 할수록 미국 문화의 중심점은 상실될 것이다. 미국 문화의 단일한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은 미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모든 문화의 가치를 옹호하는 문화적 상대주의는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며 사회적 타락을 불러온다.

[지문-2]

다문화주의자들은 각 민족 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조화롭게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민 오기 전 지녔던 사회적 가치와 문화, 종교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무지개처럼 각각의 색을 인정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막고 다양성을 통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다문화주의자들의 생각이다. 미국의 실체가 문화적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하려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 미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민족 중 유독 영국계 백인 신교도, 그 중에서도 남성 중심의 문화만을 정통으로 인정하고 다른 인종이나 성을 단일 문화로 동화하려는 것은 오히려 반발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이로울 것이 없다. 문화의 다양성은 미국의 자산이므로 미국인들이 이러한 다양성을 체감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미국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진실한 문화적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다.

다문화주의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미국의 핵심 가치로 생각한다. 이들의 입장에서,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상호 존중함으로써 미국 문화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이질적인 요소 간에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자신이 속하지 않은 인종·민족의 문화에 대한 친밀도를 높임으로써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다. 결국, 다문화주의자들은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섞이는 문화를 지향한다. 많은 물건들이 녹아서 섞이는 용광로(melting pot)의 방식이 아니라 아무리 섞어도 제각각의 야채를 유지하는 샐러드 접시(salad bowl)의 방식이 미국의 장래를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이다.

[지문-3]

미국의 정체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미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전하면서 생겨난 다문화주의에 대한 거부 반응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의 민권법(1964)과 이민법(1965)의 통과로 시작된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다인종, 다종교, 다언어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가 동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대신 기존의 앵글로색슨 기독교 문화(소위 WASP)는 상대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거기다 넘쳐나는 히스패닉 이민자들과 스페인어의 급성장은 미국인에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이며 미국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영어 공용화론의 지지자들의 답은 간단하다. 미국은 앵글로색슨 신교 국가이고 앵글로색슨 신교 문화로 남아 있어야 하므로 다문화 국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영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민주주의는 공통의 단일어(monolingual)를 사용하는 사회적 통합이 가능한 덕분이었으며 영어가 바로 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중언어(bilingual) 국가나 혹은 다언어(multilingual) 국가로 바뀐다면 미국의 정체성은 해체되면서 미국사회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영어 공용화론은 미국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의 산물인 것이다.

저명한 역사학자인 아더 쉐레진저(Arthur M. Schlesinger, Jr.)는 미국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통어(영어)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국의 정체성은 결코 고정되어 있거나 혹은 확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항상 형성되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인구의 변화는 항상 국가적 윤리에 변화를 가져왔고 또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통합을 해치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원화 사회로서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공화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의 결합물들—공통의 정치사상, 공통의 정치제도, 공통의 언어, 공통의 문화, 공통의 운명들—을 파괴시키지 않고 소중한 문화와 전통들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어 공용화론 주장자들이 영어의 장래를 이토록 걱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민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급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멕시코와 중남미 이민자들은 무려 40퍼센트 증가했다. 1991년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만 전체 이민자의 42퍼센트를 차지했다. 200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 계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에서 흑인을 제치고 2위(13 퍼센트)를 차지했다. 1990년 인구 조사에서 히스패닉 인구는 2천 2백 4십만명이었으나 2000년 인구조사에서는 3천 5백만3십만 명이 넘어 58퍼센트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미국이 지금 급격한 정체성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것의 단적인 표현이 다문화주의 혹은 다원주의로 표현되는 현상일 것이다. 미국은 요즘 단 한 마디의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은행구좌를 열고, 의료서비스를 받고, 연속극을 보고, 세금을 신고하고, 미국에서 사랑하고 죽을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지문-4]

멕시코 국경을 넘어 온 사람들, 특히 미등록이주자로서 라틴계나 히스패닉계 세력이 커지자, 미국은 2006년에 히스패닉계 이민금지법을 발표한다. 이는 이민국가이기를 천명한 미국의 정체성과는 모순되는 법안이다. 미등록 히스패닉계는, 비록 체류권이 없어도 시민권을 바라는 장기체류자처럼 정착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자발적으로 동화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수가 많아지고 히스패닉계가 강화되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학교나 기관을 만들라는 요구가 생긴다. 집단정체성을 주장하는 강도가 세지면서, 정부는 라틴-히스패닉계 이민규제법을 발표한다. 그러자 삶의 터전을 박탈당한 이들이 거리로 나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20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히스패닉계 이주민들이 스페인어로 미국 국가와 자국의 국가를 부르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러나 모두에 속해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합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라틴-히스패닉계의 길거리 노래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미국국가를 스페인어로 부르는 행위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넘나드는 '이중적-복수적 정체성'을 표명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민족국가의 의미와 경계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들이 형성한 '혼종적 정체성'의 표명이다. 민족정체성을 염두에 둔다면 그 노래는 언어적 다수집단에 대한 비판이고, 언어적 다수 집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며, 민족을 단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다문화주의의 한 방식이다. 다수와 소수의 경계에 의문을 던지는 노래는 민족국가와 주체집단의 해체를 성찰하게 한다. 그 노래는 혈통이나 종족에 기초하는 민족국가의 의미에 구멍을 내고 있다. 이 구멍은 민족국가만이 아니라 소규모 집단정체성에도, 개인정체성에도 뚫고 들어가 탈구를 일으킨다.

개인은 자신의 양심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문화와 종교를 선택하고 자기정체성을 형성하지만, 귀속집단의 영향을 받아 유사집단성을 지니곤 한다. 자기 집단과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집단과 교류하고 섞이면, 집단정체성으로, 집단구성원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정체성의 개인차'가 다시 만들어진다. 강화된 다문화주의로 인해 개인적 탈구가 다양해져서 경향성과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21세기적 개인은 이주자 문화와 다양하게 접하면서 정체성의 경계를 분명하게 그을 수 없는 '혼종성'을 형성한다. 정체성 유형을 분류하거나 통일할 수 없는 독특한 개체성이 만들어진다. 집단차이를 넘어 '개인 차이의 무한한 생산'이 일어나고, 분류하기 어려운 '애매한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애매한 정체성'으로 인해 파편화된 개인들은 자신만의 성곽을 쌓고 있다. 다문화주의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개인주의는 미국사회에서 집단정체성뿐만 아니라 개인정체성 간에도 낯설음을 야기하고 있다.